

종교·국적 물어보며 한 명씩 조준 사살

89명 사망 바타클랑 극장

“지진이 난 것과 같았어요.”, “피가 흥건한 바닥을 기어서 탈출했습니다.”, “전쟁보다 참혹했어요.”

프랑스 파리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테러가 발생한 지 하루가 지난 14일(현지시간) 참혹한 현장에서 목숨을 건진 생존자 등의 생생한 증언이 쏟아지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생존자들이 전한 테러 현장 모습은 참혹함 그 자체였다.

루이크 비엘(33)은 이번 테러로 최대 피

1500명 모인 공연장 이수라장 ...칠레인 “프랑스인 아니라고 하니 살려줘”

해자가 나온 바타클랑 극장에서 살아남았다. 최대 1500석까지 수용할 수 있는 바타클랑 극장에서는 테러 당시 록밴드 ‘이글스 오브 데스메탈’의 공연이 펼쳐지고 있었다. 비엘은 공연 관람권이 매진되기 직전 가까스로 표를 구해 행운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행운은 공연 시작 불과 45분 만에 인생 최악의 경험으로 바뀌었다.

비엘은 테러범들이 총을 쏘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자신 옆으로 하나둘씩 쓰러졌고

바닥은 곧 사망자와 부상자의 피로 물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테러범 3명 가운데 2명은 똑똑히 봤다”며 “한 명은 턱수염을 약간 기른 젊은이였고 작은 안경과 노란 색 베레모를 쓴 다른 한 사람은 자살폭탄 용으로 보이는 조끼를 입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명 라발랑(42)은 사람들이 도망하려는 걸 보고 자신도 탈출을 시도했지만 총소리가 나는 바람에 있던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만 했다고 말했다. 그는 “움직일 수 없었고 숨조차 쉬지 않으려고 애썼다”며 “옆에 있던 술 취한 남자는 계속 ‘우리는 죽을 것이다’고 말했다고 곳곳에서 신음 소리가 났다”고 덧붙였다.

인질로 잡혔다는 것을 알아차린 사람들은 되도록 테러범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애썼다. 극장에는 안전 상황을 물어보려는 휴대전화 벨이 끊임없이 울렸다. 그럴 때마다 테러범들의 총소리가 들렸다. 총소리는 15초 간격으로 이어졌다.

다른 생존자 필립(35)은 “테러범들이 관중에게 총을 쏘고 사람들은 탈출하려고 했다”며 테러범들이 ‘움직이면 죽어겠다’, ‘우리는 시리아 형제들의 복수를 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테러에서 목숨을 건진 앙토니는 마스크를 하지 않고 콧수염을 기른 테러범이 총

을 난사한 것이 아니라 겨냥을 하며 쏘고 회상했다. 그는 “테러범들이 갔다는 소리에 ‘피 웅덩이’를 기어서 빠져나왔다”며 끔찍했던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총부리가 눈앞에까지 왔지만 프랑스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목숨을 건진 칠레인도 있었다. 다비드 프리츠 괴팅커(23)는 테러범이 자신을 주목하며 국적과 신을 믿는지를 물었다고 털어놨다. 그가 신을 믿으면 프랑스인이 아니라 칠레인이라고 답하자 테러범들이 총을 쏘지 않고 놓아줬다고 설명했다. 괴팅커는 “지진이 난 것과 같았다”며 “테러범들은 사방에 총을 갈겼고 폭발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 생존자들과는 달리 총을 맞은 부상자들은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치료를 받았다. 파리 조르주 푸가두 병원의 필립 쥐뱅(51) 응급센터장은 “전쟁보다 참혹했다”는 말로 테러의 끔찍함을 표현했다. 쥐뱅 센터장은 전날 밤 테러 공격 후 병원 호출을 받고 출근해 가슴과 배 등에 총상을 입은 50명의 부상자를 마중했다. 쥐뱅 센터장은 2008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마취과 의사로 일한 적이 있었는데 응급센터로 실려온 환자들이 전쟁 속 부상병들과 같았다며 “평생 그렇게 많은 부상자를 한번에 본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 시간대별 상황

13일(현지시간) 밤부터 14일 새벽까지 발생한 이슬람 국가(IS)의 동시다발 테러로 인한 사망자가 현재까지 모두 129명, 부상자는 352명으로 집계



에도 목결 14일 한 남자가 테러가 발생한 프랑스 파리의 르 카리용 식당 밖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 목표 로마”說...伊 정부, 국경 봉쇄 검토

이탈리아 정부는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 이후 로마가 다음 테러 목표 중 한 곳이라는 설이 인터넷 등지에서 퍼지자 국경을 봉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탈리아 언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날 오전 마테오 렌치 총리 주재로 긴급 안보위원회를 열어 국경봉쇄 여부 등을 논의한다고 이탈리아 일간 일 메사제르가 전했다.

이미 로마 피우미치노 공항에서는 자유로운 왕래를 허용하는 생권 조약에 따라 유럽연합(EU) 여권을 소지하고 파리로 직

행하는 승객들에 대해서도 일부 통제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 테러 이후 ‘이슬람국가’(IS) 지지자들이 트위터에 파리 테러를 ‘자축’하면서 “이제 로마, 런던 그리고 워싱턴” 등의 글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글은 ‘화염에 싸인 파리’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급속도로 전파되고 있다. IS는 그간 홍보 영상 등을 통해 파리와 함께 워싱턴DC, 런던, 로마 등 서구 주요 도시를 겨냥한 테러를 여러 차례 예고한 바 있다.

혼자 대피한 대통령

올란드, 축구장 밖 폭발음에 빠져나가 8만 관중에 공지 없이 경기 계속 진행

‘2차 세계대전 이래 최악’으로 꼽히는 테러 외중에 축구 경기를 보던 프랑수아 올란드 프랑스 대통령이 혼자 대피, 도마에 오르고 있다.

올란드 대통령은 13일(이하 현지시간) 오후 9시 프랑스 파리 스타드 드 프랑스에서 열린 프랑스와 독일의 친선 축구경기를 관전했다.

2016 유럽축구선수권대회(이하로 2016) 본선을 앞두고 주최국 프랑스와 막강 우승 후보 독일이 맞붙었기에 다른 사안이 없었지만 친선 프랑스와 세계 언론 지면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을 법한 ‘빅매치’다.

그러나 전날전 19분께, TV 중계로도 전달될 만큼 큰 폭발음이 경기장 밖에 들려오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파리 시내에선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으로 추정되는 무장 괴한들의 총기 난사와 폭발 등 행각으로 최소 120명이 사망한 최악의 테러가 벌어지고 있었다.

주말을 앞두고 축구를 즐기던 올란드 대통령은 급거 안전지대로 대피했다. 하지만 대통령을 제외한 일반 관중은 아무런 공지도 받지 못한 채 그대로 축구장에 머물러야 했고 경기 중단은 없었다.

폭발 소리에 관중이 동요하기도 했으나 축구는 이어졌다. 경기가 끝난 후에야 ‘외부 상황 때문에 일부 출입구는 폐쇄한다’는 안내가 나왔을 뿐이었다.

바깥소식을 확인하고는 곧바로 나가기를 꺼린 관중 일부는 그러므로 내려오기도 했다. 2000여 명은 경기 종료 후 30분이 지나도록 계속 경기장에 머무르며 어쩔 줄 몰라 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한편 한여 관중이 운집한 경기장 옆 테러로 대통령이 피신했는데도 친선 축구를 계속 진행한 것에 대해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생명 나눠준 시민

현혈 위해 3시간 기다리고 집은 대피처 제공 무료로 귀가 도운 택시 등 ‘박애정신’ 돋보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테러를 겪은 프랑스인들의 시민정신이 감사 속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AFP통신 등은 1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현혈센터에 테러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피를 나누려는 시민들이 100m 가장 늘어섰다고 보도했다.

전날 테러가 발생한 중 한 곳인 캄보디아 식당 ‘프티 캄보주’ 맞은 편 병원 에도 현혈하려는 시민들이 길게 늘어섰다.

포피두 병원에서는 현혈을 위한 대기 행렬이 길어지자 병원 관계자가 “대기 인원이 너무 많아 오래 기다려야 하니 나중에 다시 와달라”고 돌려보내기도 했다.

저널리스트 엘라나 앤더슨은 자신의 트위터에 “일부 파리 시민들은 현혈을 위해 3시간까지 줄을 서서 기다렸다”고 전했다.

현혈에 나선 시민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현혈 행렬의 사진을 올리는 한편, 부상자 현황과 현혈 방법 등을 공유하면서 서로의 현혈을 독려했다.

테러로 인해 대피처가 필요한 시민과 관광객에 자신의 집을 내주겠다고 시민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많은 시민들이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열린 문’(Open door)이라는 뜻의 ‘PorteOuverte’ 해시태그를 달고 자신이 사는 곳의 주소와 이용 가능한 방 개수 등을 알렸다.

또 이날 파리의 일부 택시 기사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미터기를 끄고 돈을 받지 않은 채 운행하기도 했다. 미국 매체 비즈니스인사이드는 전했다. 프랑스의 박애정신과 시민의식이 테러 이후 돋보이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신택부동산 공매공고

1. 공매대상물건 및 최저매매가격

구분	종	호	잔액(원)	종도
1	101	903	84,9209	공동주택
2	101	1304	84,9209	공동주택
3	102	1202	84,9209	공동주택

2. 공매사항

1) 공매대상: 당사 26층 피막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상상동, 마천2동))

2) 영도계약: 공매목적물에 대한 인도 및 영도 책임은 매수자 부담

3) 공매방법

- 입찰의 성립: 공매경매신청 받음으로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서서 성립한다.
- 입찰 방식: 물품별 개별입찰이 가능하다.
- 개찰: 입찰 종료 후 입찰 장소에서 개찰한다.
- 낙찰자 결정: 최저매매가격 이상 응찰자중 최고금액 응찰자에게 낙찰한다. 다만, 최고금액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고금액 입찰자만을 상대로 해당 최고가 입찰금액을 최저매매가격으로 재입찰할 목적으로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4) 입찰서류

- 입찰서(당사 소정양식) 1부
- 계약: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 위7자리 및 운전면허번호 식별, 인감증명서(주민등록번호 위7자리 식별) 1부 및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위7자리 식별) 1부,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법인: 대표자 확인서(법인인용기부증명서 및 대표이사 신분증, 주민등록번호 위7자리 식별, 법인 인감증명서 1부 및 인감도장(사실인감증명서 사용인용) 1부, 법인인감도장 1부
- 대리인이 입찰 할지시 인감법인인용증명서사 첨부후 위임장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10% 이상의 공용기금 및 우체국예금 자기납부수표를 입찰서와 동봉하여 납부합니다. (자기납부 수표는 별도 납부)

6) 계약금과금

- 입찰금액이 평가기세 별도일 경우, 동 평가기세는 전금납부금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금납부후 계약금이 전금납부 지령서 이후 발생하는 공매목적물에 대한 계약금과금 및 관리비 등 일체의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7)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 낙찰자는 당사자 정한 계약서에 의하여 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서 및 입찰보증금을 전액 계약금보통금으로 대체하고, 계약금 체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을 취소하고, 입찰보증금은 매도자에게 귀속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신택부동산 (주)
DAEWON REAL ESTATE TRUST CO., LTD.

수익시설 입찰 공고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

| 입찰명 |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1루측 수익시설 사용권

소재지	면적(㎡)	최저입찰가(천원)	용도	계약기간
광주광역시 북구 서림로 10	1층: 2,742.5㎡ 2층: 1,465.0㎡	239,464,194원 (부가가치세별도)	1층: 운동시설, 유흥음식점 2층: 판매시설 (상점)	3년(연장가능)

| 입찰 참가자격 |

-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는 「유통산업발전법」 및 「광주광역시 북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에 의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해당되므로 관계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사업만 입찰이 가능함
- 법인에 한하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국·공유재산 사용료(임대료) 체납 및 계약을 해지당한 적인 사업자 사용료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내에 일시납 조건으로 납부할 수 있는 사업자
- 사용료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내에 일시납 조건으로 납부할 수 있는 사업자

구분	일정	비고
입찰공고	2015.11.16(금)	기아타워2층 홈페이지(자판입찰)
현장설명회	2015.11.23(월)	기아 챔피언스필드 1층 인터뷰실
입찰서류 접수	2015.11.30(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2층 기아타워2층 마케팅팀
최종낙찰자 결정	2015.12.07(일)	기아타워2층 홈페이지 및 개별 홍보

문의사항: 기아타워2층 마케팅팀 T. 070-7686-8041
홈페이지 팝업창 참조: www.tigers.co.kr